

기사입력 2015/08/23 15:13

인쇄하기

중서부한국학교협 윤현주 신임회장 선출



22일 가나안한국학교에서 열린 교사연수 및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윤현주 신임회장 선출

한국학교협의회가 윤현주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중서부한국학교협의회는 22일 가나안한국학교에서 교사연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9월부터 2년간 협의회를 이끌 신임회장으로 윤현주 현 부회장을 뽑았다. 윤 신임회장은 “교장 선생님들, 역할이 중요한 학부모들과 함께 중서부 지역에서 한국학교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임기 중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교사연수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재욱 교수의 ‘한글 창제와 한글 교수법’, ‘한국어 교육용 부교재 제작과 활용’ 주제강연과 분반수업이 진행됐다. 또 개교 20년이 넘는 하상한국학교와 10년 근속한 이지연·강희갑 교사, 40년 근속한 윤정수 교사,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상자(정지연)에 대한 시상식도 마련됐다.

이날 교사연수회에 참석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최미영 총회장은 “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집중·순회연수회로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주고 있다. 또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백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